

陰陽合德의 意義와 思想的 價値

朴昇植*

目 次

I. 研究의 視覺	1. 調和
II. 陰陽思想의 展開	2. 民主主義의 理念
1. 易經	3. 價値創造
2. 道家思想	4. 自然主義的 倫理觀
3. 儒家思想	V. 陰陽合德의 實現
III. 陰陽合德의 意義	1. 解冤相生
1. 大巡思想의 意味	2. 報恩相生
2. 陰陽合德의 意義	3. 人尊思想
IV. 陰陽合德의 思想的 價値	VI. 結論

I. 研究의 視覺

본 논문은 대순사상의 대표적 사상인 음양합덕의 의의와 사상적 가치에 관해 연구한 것이다. 음양합덕은 음양사상을 재개념화하여 역사 발전을 설명하고, 인간생활과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사상체계로 정립한 개념이다. 전통적인 음양사상은 음과 양의 대립적 성질이 경쟁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변화시킨다고 한다. 이러한 음양사상과 음양합덕은 인간생활과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상이 될 수 있는데, 그 동안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행정학 박사

이는 사상, 종교, 문화 등 정신영역에 있어서도 사대성을 갖고 있는데에서 나타난 현상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 종교, 문화 등은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서구적인 사상, 종교, 문화 등에 압도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대화가 서구화로 인식될 정도로 우리는 전통적인 것 보다는 서구에서 도입된 사상, 종교, 문화 등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고유한 사상, 종교, 문화 등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연구성과도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서구의 사상과 종교, 문화 등에 의한 발전은 인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고도의 산업화를 이룩한 현대사회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물질문명이 발전하면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보았지만, 실제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빈곤과 질병, 전쟁 등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었지만, 물질문명의 발달은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인류의 위기론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인구증가로 인한 식량부족,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 무기의 개발과 전쟁의 위험, 산업화로 인한 천연자원의 부족과 환경파괴, 인간의 존엄성과 주체성의 상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오래전서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개선되기 보다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미래사회는 현대사회 보다도 변화가 급속하고 복잡하여 현재 보다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미래사회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안정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Paul Kennedy는 인구폭발, 환경악화, 기술의 변화 등이 인간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우려할 정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21세기 중반에는 세계의 인구가 100억 정도에 이르러 지구의 수용능력을 크게 초과할 것이며,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정치적 불안은 폭력

과 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의 혜택, 집단이나 개인이 중요시하는 건강과 교육과 여가의 기초가 되는 생활수준의 차이가 커지게 될 것이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혁은 매우 어렵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단기적 문제조차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적 전망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하고 있다.¹⁾

미래학자 Alvin Toffler도 인간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적응파탄(adaptational breakdown)에 처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²⁾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너무나 짧은 기간에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현대인들은 급속한 변화에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커다란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인간이 적응할 수 있는 변화의 양은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 현대사회의 변화는 인간이 적응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자극(overstimulation)으로 적응파탄과 신체적·심리적 충격 등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부적응 현상을 Alvin Toffler는 미래충격(Future Shock)이라 한다.

미래충격은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으로써 變化病이라 할 수 있는데, 미래에는 현재 보다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충격은 신체적인 부적응과 심리적 불안으로 정신쇠약, 신경과민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 지식인들이 '변화를 위한 교육', '미래를 위한 인간의 대비'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그 방법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전무한 상태라 한다. 급변하는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인간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너무나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³⁾

한편 우리 사회는 빈부의 격차, 지역개발의 불균형(지역감정의 고조), 都農간의 격차, 불안정한 노사관계, 비민주적 정치행태와 정치불안, 경제침체, 부패와 부정의 만연 등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

1) P. Kennedy, *Prepar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 Random House, 1993).

2) Alvin Toffler, *Future Shock*, 李揆行 譯, 미래쇼크(서울 : 韓國經濟新聞社, 1996), p. 321.

3) 上揭書, pp. 12-14.

제는 과거서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으나, 해결되기 보다는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와 미래사회의 각종 복잡한 문제는 서구의 사상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어렵다고 본다.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급격한 변화에 대한 부적응 현상과 환경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에 나타난 많은 문제들은 서구의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서구의 고도화된 물질문명이 정신문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데에서,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미래사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동양의 전통사상인 음양합덕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하는데에는 동양의 전통사상인 음양사상과 대순사상에 의한 철학적·사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순사상은 陰陽合德, 神人調化, 解冤相生, 道通眞經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순사상은 한국의 전통사상과 종교적 유산을 모두 간직하고 있어 한국의 전통사상이나 종교의식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⁴⁾ 대순사상은 전통사상과 종교의식을 연구하는 것 만이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과 미래사회를 준비하는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상이라 생각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주와 인류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협력하는 관계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주와 인류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경쟁과 투쟁을 하는 상극관계에서, 서로를 도와 주는 상생적 관계로 바뀌어져야 인류의 위기는 극복되고,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생적 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음양합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음양합덕은 가정과 인간생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 등에서 실현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라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음양사상의 내용과 전개과정, 그리고 음양합덕의 의의와 사상적 가치, 실현방법 등에 관해서 논구해 보고자 한다.

4) 盧吉明, “神과 人間の 圓한을 抹消한다”, 趙明基의 33인, 韓國思想의 深層研究 (서울 : 宇石, 1990), p. 425.

II. 陰陽思想의 展開

음양이 만물을 이루는 본체가 된다는 음양사상은 중국의 전국시대에 이루어졌다. 음양이 하나의 氣가 된다는 관념은 전국시대에 형성되었으며, 음양이 만물의 근본이 되고 도덕적인 의미까지 갖게 된 것은 송대에 유학이 발전하면서부터이다. 즉 음양사상은 十翼을 갖추어서 완성된 易經(周易)에서 체계를 형성하였고, 노자와 장자를 중심으로 한 도가, 그리고 공자와 맹자를 중심으로 한 유가 등에 의해 발전되었다. 여기서는 역경과 도가와 유가에서 전개되어온 음양사상에 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1. 易經

원시사회에서는 과학적인 지식이나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呪術적인 방법이나 신의 뜻을 따르려는 경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대 중국에서도 국가대사를 점을 쳐서 결정하는 관습이 있었다. 즉 서복(筮卜)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 周初에는 連山, 歸藏, 周易의 3易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은 주역 뿐이다.⁵⁾ 역경 또는 역이라 불리고 있는 주역은 유교의 四書五經의 하나로 중국은 물론 동양사회의 고전이 되어 왔다.

역경사상은 춘추시대로부터 秦漢에 이르는 시기에 완성되었다. 이 시기는 중국 역사에 있어서 커다란 변혁기이었다. 사회제도는 고대 봉건제에서 郡縣制로 이행하고 있었고, 氏族共同體가 붕괴되고 전통적인 귀족계급이 몰락하였다. 정치적으로는 周王朝의 전통적 권위가 실추되고 군웅이 할거하였으며, 사상적으로는 기존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었으나 새로운 가치관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과도기였다. 이와 같이 급격한 변화와 혼란이 극심한 상황에서 변화의 실상을 파악하려는 것이 역경사상의 시발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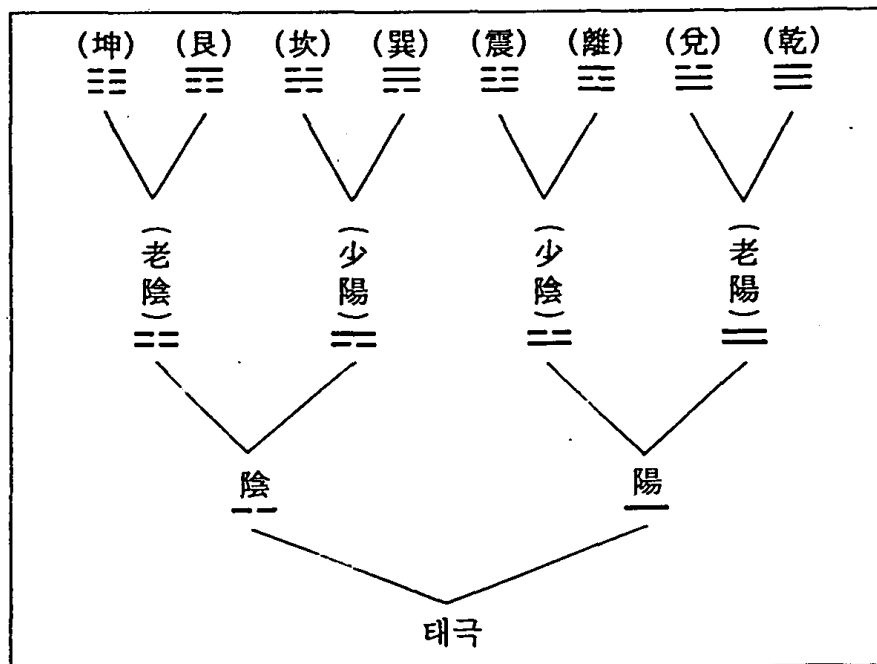
易이란 글자는 도마뱀을 옆에서 본 상형문자로서 日자는 머리부분이고, 하부의 勿은 발과 꼬리를 나타낸다. 어떤 도마뱀은 12時蟲이라고도 하는데,

5) 盧台俊 譯解, 新譯 周易 (서울 : 弘新文化社, 1996), p. 3.

몸의 색깔이 하루에도 12번이나 변한다고 하는데에서 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역이란 글자는 漢의 鄭玄이 말한 바와 같이 簡易(쉽다), 變易(변하다), 不易(변하지 않다) 등의 세가지 뜻이 있다.⁶⁾ 우주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인간사회도 쉬지 않고 변화하기 때문에 變易한다. 우주와 인간사회는 계속 변화하지만, 일정한 법칙이 있어 변역하지 않는 不易도 있다. 우주와 인간세계는 끈임없이 變易하여 복잡하지만, 그 원리를 알면 간명하기 때문에 簡易이라 한다. 역경은 簡易, 變易, 不易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不易을 음양의 대립과 轉化의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인간이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생기고 소멸하는 자연현상에서 불변의 법칙을 발견하고, 불변의 법칙으로 사회를 이해하고 지배하려고 하였다. 역경을 만든 사람들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세계를 단순화시켜서 세계를 재구성하였다.

역경은 태극으로부터 음과 양이 분할되고, 각각 다시 음과 양을 겹쳐 4象(老陰, 老陽, 小陰, 小陽)을 만들었다. 4象에 각각 음과 양을 겹쳐 8괘를 만들고 있는데, 그 구성을 보면 <그림-1>과 같다.⁷⁾

<그림- 1> 易經의 構成



6) 裴宗鎬, “東洋 本體論 序說”, 韓國東洋哲學會 編, 東洋哲學의 本體論과 人道論 (서울 : 延世大學校 出版部, 1986), p. 6.

7) 盧台俊 譯解, 前掲書, p. 26.

8괘의 기본은 --(剛爻·陽爻)와 --(柔爻·陰爻)이다. 두 효는 奇數와 偶數로서 剛과 柔인 음과 양을 뜻하는 것이다. 두 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생식기 숭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8괘는 천지만물의 현상과 형태를 상징한 것인데, 8괘의 한개 한개를 서로 겹쳐서 64괘를 만들어 우주의 구성을 해명하고, 인간의 吉凶禍福과 處世之道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처세지도는 위정자의 政治道로서 주역은 帝王之學이 되었다. 역경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준거로 삼아야할 원리로 인식하였고, 제왕이나 재상들이 정치를 하는데에도 지침이 되었다.

8괘에 자연현상을 적용한 것이 象이다. 象은 처음에는 자연현상인 하늘(天), 땅(地), 우뢰(雷), 바람(風,木), 물(水,雨), 불(火,日,電), 산(山), 못(澤) 등을 붙이고, 이를 가지고 점을 쳤다고 생각된다. 8괘의 상과 자연현상, 인간, 신체부위, 동물, 성질 등의 관계를 보면 <표-1>과 같다.⁸⁾

<표 -1> 8괘의 象과 關係

괘	자 연	인 간	신 체	동 물	성 질
☰ 乾	하늘(天)	부	머리(首)	말(馬)	강건(健)
☷ 坤	땅(地)	모	배(腹)	소(牛)	유순(順)
☳ 震	우뢰(雷)	장남	발(足)	용(龍)	움직임(動)
☴ 巽	바람(風·木)	장녀	사타구니(股)	닭(鷄)	들어감(入)
☵ 坎	물(水·雨)	중남	귀(耳)	돼지(豚)	험난(險)
☲ 離	불(火·日·電)	중녀	눈(目)	꿩(雉)	부착(麗)
☶ 艮	산(山)	소년	손(手)	개(狗)	그침(止)
☱ 兌	못(澤)	소녀	입(口)	양(羊)	즐거움(悅)

각 괘에는 자연현상과는 다른 특수한 성질이 붙여져 있다. 乾의 괘에는 健의 성질이 있어서 강건하고, 坤의 괘에는 順의 성질이 있어서 유순하고, 震의 괘에는 動의 성질이 있어서 움직임이 있고, 巽의 괘에는 들어가는 성질이 있고, 坎의 괘에는 험난한 성질이 있고, 離의 괘에는 부착하는 성질이 있고, 艮의 괘에는 그치는 성질이 있고, 兌의 괘에는 즐거움의 성질이 있다고 한다.

8) 上揭書, p. 16.

역경의 사상적 핵심은 음(坤)과 양(乾)이 대립한다는 陰陽二元論이다. 역경에 따르면 하늘과 땅을 비롯하여 우주 만물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음양과 같이 대립되는 것이 있어서 통일된 세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우주의 모든 변화는 음양의 대립에서 생기기 때문에 대립이 없는 곳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한다. 음인 坤과 양인 乾이 대립함으로써 변화가 생기는데, 곧과 건 중 하나만 없어도 변화는 생길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음과 양의 성질은 고정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전화한다. 陰은 柔, 弱, 低, 暗, 수동적, 여성적이고 陽은 強, 剛, 高, 明, 능동적, 남성적이다. 음양이 각각 갖고 있는 성질은 변화하여 음이 양이 되기도 하고, 양이 음으로 변하기도 한다. 역에 있어서 변화는 음양의 消長과 교체가 기본이다. 태양은 떠올라 기울고 밤이 되면 달이 떠오르고, 계절도 순환하여 변화하게 된다.

乾은 굳세고 능동적이며 강건하다는 뜻이다. 건은 무한히 넓고 큰 하늘을 의미하는데, 아버지로 비유된다. 건은 위대한 창조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 힘을 통해 만물은 생명을 갖게 된다. 반면에 坤은 조용하고 부드러우며 순종한다는 등의 뜻으로 한없이 넓은 대지를 의미한다. 대지는 모든 것을 육성시키고 성장시키기 때문에, 자식을 낳고 기르는 어머니로 비유된다. 대지는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으나, 풍부한 힘을 갖추고 있어 모든 것을 낳고 육성할 수 있다. 하늘의 힘도 땅이 받아 들일 때 나타난다. 남성의 정기도 여성이 받아 들여야 새로운 생명을 만들 수 있다. 음양은 대립되어 있으면서도 통일되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우주를 변화시킨다.

셋째, 우주의 순환적 질서는 인간사회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사람의 번성이 극에 달하면 쇠퇴하여 멸망하는 시기가 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매우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번성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 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역경사상은 인간사회에서도 자연적 질서와 같이 변화하고 순환한다고 보고 있다. 인간도 천지만물의 한 존재이기 때문에, 음양의 변화 법칙과 원리를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인간이 자연의 법칙과 원리를 체득하게 되면, 인간은 자연의 법칙과 원리를 사용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⁹⁾ 역경은 인간의 운명을 다루지

만, 운명은 인간이 개척할 수 있다고 본다. 불운한 상황에 있을 때에는 행운의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행운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행복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불운의 날을 생각하며 스스로 경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관리하고 개척할 수 있다고 한다. 인간사는 항상 변화하는 것이므로 부귀한 때에 교만하지 말고, 빈곤하더라도 비굴하지 말라고도 한다.

역경은 陰陽對峙로 天地人 三才를 해명하는 것으로 전국시대의 음양가와 상통하게 되었고, 陰陽兩儀의 본체로서 宋代 理氣說의 근원이 되었다. 陰陽兩儀로 모든 것을 해명한 역경은 秦漢代에 이르러 五行思想과 결합되면서 陰陽五行으로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음양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자연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변화의 양상을 다섯가지 유형으로 표현한 것이 오행설이다. 오행의 行도 음양과 같이 道로 보고 있다.

2. 道家思想

노자는 우주생성론에서 도가 만물 생성의 근원이라 하면서, 조화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다. 노자는 “道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음에너지를 등에 지고 양에너지를 가슴에 안고 음에너지와 양에너지가 통일된 힘으로 조화를 이룬다”⁹⁾고 한다. 우주의 만물은 도에서 태어나는데, 만물은 두가지 대립되는 성향 또는 성질인 음양을 갖고 있지만 서로 통합되어 조화를 이룬다고 한다. 천하의 만물과 현상은 상대적으로 모든 것이 대립하는 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립하는 것만을 보면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도와 음양의 조화를 예증하여 강조하고 있다.

남성적인 것을 알고 여성적인 것을 지키면 천하의 골짜기가 되고,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常德이 몸에서 떠나지 않아 어린아이의 무심으로 복귀하게 된다. 白을 알고 黑을 지키면 천하만민의 모범이 되고, 천하만민

9) 徐相潤 譯解, 周易 (서울 : 韓國協同出版社, 1983), pp. 19-20.

10)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 金敬琢 譯解, 新譯 老子(서울 : 玄岩社, 1985), pp. 206-207.

의 모범이 되면 상덕에서 어긋나지 않고 無의 극치인 道에 복귀한다.¹¹⁾

남성적인 강인함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여성적인 유연성을 유지하면 온 세상이 조화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음양의 조화를 이해하고 자연과 같이 살아가면, 온 세상이 조화되는 영구불변의 無爲의 德을 몸에 지닌 순진무구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 가게 된다는 것이다. 음양의 이치를 알고 조화시킬 수 있으면, 덕을 실행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장자는 기가 만물의 기본원질인데(通天下一氣耳), 그것이 음양으로 나뉘고 음양의 기가 서로 교류하여 새로운 조화를 형성한다고 한다. 장자는 몸은 자연이 한시적으로 위탁한 형체(天地之委形)이고, 삶은 자연이 한시적으로 위탁한 조화상태(天地之委和)이고, 생명은 자연이 한시적으로 맡긴 자연에 순응하는 경향성(天地之委順)이라고 한다. 개체의 생명은 천지와 음양 두 기의 조화로운 결합의 산물이라고 한다. 개체생명은 천지에 근원하고 만물은 본래 동일한 본체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것이다. 자연은 나와 더불어 동일한 근원으로부터 형성되었기 때문에, 만물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인간의 존재 의미는 우주적 차원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한다.

장자는 우주는 개체 생명의 발생 근원이며, 각각의 개체가 최종적으로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개체 생명은 우주와 분리될 수 없다고 한다. 장자의 우주관은 자연과 인간을 동일시하고 존재의 조화성을 강조한다.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모든 사물과 가치들을 볼 때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나와 타인 등의 구별은 의미가 없다고 한다. 구별과 차별은 도의 관점에서 사물이나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편협한 입장에서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 한다. 장자는 편협한 관점에서 벗어나 근원적인 도의 입장에서 사물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사물을 인식할 때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으며, 자연과 인간은 하나가 되는 沒我一體라 하였다.

장자는 개체 생명의 탄생은 모체로부터 분리된 조화체이고, 개체의 생존

11) 盧台俊 譯解, 新譯 道德經 : 老子 (서울 : 弘新文化社, 1994), pp. 103-106.

과 성장은 각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은 조화로운 상태로 보고 있다. 장자는 자연과의 조화(天和), 인간 상호간의 조화(人和), 마음 내부의 조화(心和)를 중시한다. 天和, 人和, 心和는 분리할 수 없는 상보관계에 있으며, 자연적 정신을 바탕으로 한 天人合一을 뜻한다.¹²⁾ 세가지 조화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광대한 조화이다. 장자의 이러한 조화관은 두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조화의 아름다움이고, 다른 하나는 조화 속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¹³⁾

첫째, 조화의 아름다움은 심미적 내용을 갖고 있다. 조화는 일종의 고도의 예술적 심성함양에 도달한 상태이다. 장자는 마음의 조화(心和) 경지는 신령스러움이 머무는 곳(靈府)이라 한다. 심화상태에서는 우주가 무한히 아름다운 모습을 함축하고 있으며,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름답게 느껴진다고 한다. 한편 자신을 돌아볼 때도 감미롭고 희열감이 넘친다고 한다. 심화는 일종의 예술적 경지이며, 심미적 상태로서 즐거움의 극치라는 것이다.

둘째, 조화 속의 차이는 아름다움은 조화에 있는데, 조화는 대립을 통일하는데에서 생긴다고 한다. 인간은 언제나 동일함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것을 보존하려 한다는 것이다. 장자는 “모든 것이 이치를 달리 하지만, 도는 보편적이다”라고 하였다. 즉 도는 보편에 속하고 만물의 개체 생명은 특수에 속하기 때문에, 보편과 특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 모든 것은 도에 포함되어 있고, 도는 만물에 의해서 그 기능을 드러내어 다양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러한 사상은 사회에서는 사회가치의 다원화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정치에서는 개체의 존엄성과 특별한 재능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장자는 모든 존재는 각자의 특수한 내용과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가에서도 역경과 같이 자연의 모든 변화를 대립적인 음양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이해하고, 음양을 대립이나 모순으로 보지 않고 조화로 보고 있다. 도가에서 대립 속의 조화는 道の 상태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도는 어떠한 作爲나 욕망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의 도로서 無爲

12) 陳鼓應, “道家的 調和觀”, 東亞日報社, 동양사상과 사회발전(서울 : 東亞日報社 1996), pp. 50-59.

13) 上揭論文, pp. 60-61.

自然이라 한다. 모든 만물은 무위자연의 도에 의해서 생성변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는 강요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老莊思想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生滅變化를 되풀이 하지만, 도는 만물의 생멸과 변화를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영원불멸하는 도를 깨달을 때, 인간 존재의 의미와 참다운 삶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도를 天道라고도 하는데, 천도는 천지 자연의 이치로서 理라고도 한다. 즉 천도는 인간과 자연계를 지배하는 영원불변의 진리, 자연의 법칙, 필연의 理法 등을 의미한다.

노자는 도는 無爲에서만 나타나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은 피상적이라고 한다. 도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한 도덕은 인간의 본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도의 세계(자연의 단순성)를 잃지 않으면, 예의는 저절로 나오고 덕도 저절로 나온다고 한다. 도가 사라질 때 仁義가 나오고, 지식이 생길 때 모든 인위성이 나온다는 것이다. 도의 근원을 잃었을 때 인간이 인의를 구하지만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조작과 제약을 하지 않고 선악에 대한 생각과 지식이 없는 도안에서 단순하게 살게 해야 한다고 한다.

노자는 無爲自然의 도를 체득한 사람을 성인, 또는 “도를 잘 다스리는 자”, “하나를 품은 자”, “靜을 지키고 柔를 지키는 자”라고도 하는데, 성인을 어린이에 비유하고 있다. 道德經 제10장, 제20장, 제28장 등에서 도를 체득한 사람은 어린이와 같이 무지·무욕의 상태인 무심의 경지에 있다고 한다. 어린이는 잡념이 없이 놀고 있는데, 이는 마음을 언제나 한 곳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도를 체득한 자를 어린이와 같은 상태라 한 것은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노자는 지혜와 욕망은 인간을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구속하는 것이므로, 어린이와 같이 무지·무욕이 되었을 때 無爲自然의 도를 실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과 지혜들을 부정하고, 원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는 무위자연을 復歸라 한다.

노자사상에서는 常이 중요한 개념이다. 常은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참을 말한다. 모든 사물이 왕성하게 성장하지만, 결국은 각자가 근원으로 돌아가

게 되는데,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요함이라 하고 고요함을 필연에 돌아감이라 한다. 필연에 돌아가는 것을 일관성이라 하며 일관성을 지혜라고 한다. 이는 만물이 왕성하게 성장하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질서와 우주의 법칙을 배우게 된다고 한다. 한편 만물의 한 부분인 인간의 존재가 혼란상태에서도, 고요하고 안정(靜定)에 이르는 공부에 의해서 생명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다고 한다. 필연으로 되돌아간다(復命)는 것은 생명에서 발단하는 활력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순환하여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규칙을 常이라 한다. 常은 변화하면서도 부단히 평형과 조화의 상태에 도달하려는 과정을 말한다.¹⁴⁾

3. 儒家思想

유가철학이 다루는 주요 내용은 人性論과 天道論이다. 인성론과 천도론은 이론의 구성 근거와 철학목적상 분리해서 다룰 수 없는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인간의 생존방법(人道)이 天理自然(天道)을 본 받아서 설정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성론은 천도론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인성론과 천도론은 어느 한 이론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유학에서도 초기에는 인성과 천도를 중시하여, 공자는 천도와 인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¹⁵⁾ 그러나 맹자와 순자는 인성론만 강조하여 宇宙論이 결여된 반신철학이 되고 말았다. 유가철학에서 인성론과 천도론이 하나의 체계 속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宋明理學이 형성되면서 부터이다. 宋代哲學은 理氣·心性의 연구로 理氣는 실재로서 本體論에 해당하는 것이고, 心性은 심리윤리로서 인성론에 해당된다. 그 이전에는 주로 인성론에 치중하였고, 천도론은 도가와 불가에서 연구되었다. 唐末에 이르러 불교와 노자에 대한 배척운동이 일어나자, 이들 철학이론에 대해 우수한 철학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천도론과 인성론을 결합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14) 上揭論文, pp. 44-45.

15) “思知人，不可以之不地天”(中庸), “聖人有以見天下之動而觀其會通，以行其典禮”(易繫解七上), “明於天地道，而察於民之故”，“聖人以通天下之志，以定天下之業”.

시도는 周濂溪가 太極圖說을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太極圖說은 천도론과 인성론을 종적으로 연결시킨 유가 최초의 이론이며, 이에 따라 新儒學은 불교와 노자의 철학체계에 버금가는 천도론(우주론)의 이론체계를 갖추게 되었다.¹⁶⁾ 유가철학에 있어서 新儒學이 대표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천도론과 인성론을 철학적으로 재구성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周濂溪를 신유학의 창설자로 삼는 것은 宋明理學이 모두, 그의 태극도설을 중심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太極圖說은 前後2段, 천도론과 인도론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前1段에서 천도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무극이 태극이고, 태극이 움직이어 陽을 낳고, 움직임이 極에 달하면 고요해지는데, 고요해지면 음을 낳으며, 고요함이 극에 달하면 다시 움직이게 된다. 한번 움직이고 한번 고요해지는 것이 서로 뿌리가 되면서 음이 나뉘어지고 양이 나뉘어져서 음양이 서게된다. 양이 변하여 음과 합쳐져서 水火金木土를 낳는다. 이 다섯가지 기가 순조로이 퍼져서 四時가 운행되는 것이다. 五行은 하나의 음양이며, 음양은 하나의 태극인 것이다. 태극은 본래 무극이다. 오행이 생기면 각기 하나의 성질을 갖는다. 무극의 진리와 음양오행의 정기가 오묘하게 합쳐지고 엉기게 된다. 乾道는 남자를 이루고, 坤道는 여자를 이루는데, 두 기운이 交感하여 만물을 생성하게 되니 만물은 끊임없이 서로 생성하면서 변화가 무궁해진다.¹⁷⁾

천도론은 무극이 태극이라 하여 동일한 것이라 하였지만, 유형적으로는 달리 보고 있다. 무극이 현상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형 또는 원본을 찾아가는 궁극적인 것이라면, 태극은 원형이 현상으로 변형해 가는 시발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양인 태극에서 天地五行이 형성되는 것을 밝히고, 하늘과 땅을 남자와 여자로 대비하여 우주만물의 생성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생명을 창조하듯이 음양이 교감하여 만물이 생성되고 변화한다고 한

16) 金忠烈, “宋代 太極論의 諸問題”, 韓國東洋哲學會 編, 前掲書, pp. 77-78.

17) 無極而太極이오 太極動而生陽이라. 動極而靜이오 靜而生陰하니 靜極復動이라. 一動一靜이 互爲其根하여 分陰分陽에 兩儀立焉이니라. 陽變陰合하여 而生水火金木土라. 五氣順布에 四時行焉이니라. 五行一陰陽也요 陰陽一太極也라. 太極은 本無極也라. 五行之生也에 各一其性이라. 無極之眞과 二五之精이 妙合而凝하여 乾道成男하고 坤道成女라. 二氣交感하여 化生萬物하니 萬物生生而變化無窮焉이니라.

다. 이러한 천도론은 도가, 음양가, 유가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태극도설의 後一段은 인도론을 설명하고 있다.

오직 사람만은 그 중에서도 빼어나 가장 신령스러우니, 형체가 생성되고 나서는 정신이 앎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다섯가지 성품이 느끼고 움직이어서 선과 악이 니뉘어지고 만사가 출현하게 된다. 성인께서 中正과 仁義로서 그것들을 안정시키고 고요함을 위주로 사람의 법도를 세웠다. 성인이란 천지와 그의 德이 합치되고, 해와 달과 그의 밝음이 합치되며, 사철과 그의 질서가 합치되고, 귀신과 그의 길흉이 합치되는 것이다. 군자는 이를 닦음으로서 길하게 되고, 소인은 이를 거스림으로서 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을 서게하는 도는 음과 양이고, 땅을 서게하는 도는 부드러움과 강함이고, 사람을 서게하는 도는 仁義이다. 또한 사물의 시작과 끝에 따라 죽고 사는 이룬을 알게 된다. 위대하다 易이여, 이것이 지극함이다.¹⁸⁾

사람은 신과 같이 가장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형체와 함께 정신의 발달인 지식을 쌓을 수 있다고 한다. 사람은 다섯가지 성품에 의해 선악과 세상의 모든 일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 성인이 나타나 중정과 인의로 인간의 성품과 선악을 안정시키고 인간의 법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성인이란 천지와 덕, 日月과 밝음, 사철과 질서, 귀신과 길흉을 각각 합치시키는 존재로 보고 있다. 우주와 인간사회는 음양, 柔剛, 仁義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고, 始終에 의해 인간은 죽고 사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易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인간사회가 증용을 지키고 인의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음양의 조화로 보고 있다.

周濂溪는 太極圖說로 宋學을 열었고, 朱子는 二程, 張橫渠, 邵康節 등의 주장을 집대성하였다. 二程은 형제로서 程明道와 程伊川 형제를 말하는데, 정명도는 陸王學의 心理派의 선구가 되었고, 정이천은 程朱學의 理學派의 선구가 되었다.¹⁹⁾

18) 惟人也得其秀而最靈하니, 形既生矣요, 神發知矣라. 五性感動而善惡分하고, 萬事出矣니라. 聖人定之以中正仁義하고 而圭靜立人極焉이라. 故로 故聖人與天地合其德하며 日月合其明하며 四時合其序하며 鬼神合其吉凶이라. 君子修之吉하고 小人悖之凶이니라. 故로 曰立天之道는 曰陰與陽이오 立地之道는 曰柔與剛이오 立人之道는 曰仁與義라. 又曰 原始反終이니, 故로 知死生之說이라. 大哉라 易也여 斯其至矣로다.

19) 柳正東, “程·朱의 太極論”, 韓國東洋哲學會 編, 前掲書, p. 96.

程明道는 天을 理라고 설정하였다. 先秦 哲學에서는 도를 문제삼았으나, 理를 문제 삼은 것은 宋代부터이다. 程明道는 천지만물이 모두 이치에 따라 생동하는 만큼, 그 이치를 순종하면 쉽고 거역하면 어려우므로 굳이 부담스럽게 거역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면서,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아 가는 것이 현명한 생활이라 하였다. 그는 理를 일종의 자연적 추세로 보고 있다. 一物의 理는 일물의 자연추세이며, 천지만물의 리는 천지만물의 자연추세라고 한다. 따라서 理는 物을 떠나서 홀로 존재할 수 없다고 한다. 易繫辭에서 “形而上者를 道라고 하며, 形而下者를 器라” 하고, 또 “天道를 세워서 음양이라 하고 地道를 세워서 剛柔라 하고, 인도를 세워서 仁義라고 한다”는 것과,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도라 한다”고 이분하고 있지만 통합하여 설명하고 있다. 음양은 消長하는 氣이므로 形而下者이기는 하지만, 形而下者는 形而上者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程伊川은 우주는 氣뿐만 아니라 理의 산물이라고 한다. 기의 응결이 서로 다른 理를 따라 상이한 방법에 의해서 상이한 물체로 생성된다고 한다. 그는 만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체든지 어떤 원리가 내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원리는 논리적으로 초월하여 先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원리에 따라 상응하는 구체물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 원리를 理라 하였고 그 사물을 氣라 불렀다.²⁰⁾ 理는 초월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물이 그 안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모든 이치로 충만되어 있다고 하였다. 모든 이치는 現象界에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거나 관계없이, 그리고 인간이 그것을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朱子の 理氣觀은 추상적인 形上者를 理로 形下者를 器로 보고, 도를 理와 器로 나누어 이해하고 있다. 形影이 없는 것이 理고, 形狀이 있는 것을 器라 한다(形而上者, 無形無影是此理. 形而下者, 有情有狀是此器.). 여기서 理는 理가 포함되어 있는 物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理가 무수하게 많으므로 物도 다양하게 많으며, 물은 만물을 총칭하기 때문에 사람과 물에는 리가 모두 내재한다는 것이다.

理와 物(器와 氣)은 실제적(時空)으로는 共存共在한다고 할 수 있으나, 논

20) 上揭論文, p. 99.

리적으로는 理가 先在한다고 한다. 주자는 선재하는 논리적 理를 所以之理라 한다. 만물에는 리와 기가 동시에 존재하지만, 리에 의해서 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있을 수 있는 물은 자연이고 인위이고 간에 形上의 理를 本有하고 있으므로, 形上의 理界는 완전한 세계라고 한다. 천지가 나뉘어지기 이전에는 만물이 없었지만, 이미 그 이치를 갖고 있어 만물이 생성번영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공존하면서도 논리적으로 先在하는 理의 완전성을 주자는 極이라 하였다. 한 사물의 理는 그 사물의 완전한 형식이며, 이러한 완전형식이야말로 그 사물의 최고 표준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極이라 하였다.²¹⁾ 주자는 우주 만물의 理를 하나의 極으로 집약하고 있다.

모든 사물은 각각 극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진리이며 극지이다. 蔣元進이 「임금의 仁과 신하의 敬과 같은 것이 極입니까?」라고 물으니 선생이 이것은 一事一物의 極이요, 總天地萬物의 理는 太極이다. 太極은 본래 이름이 없고, 단지 하나의 表德일 뿐이다.²²⁾

라고 말하여 개체와 전체를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개개의 사물을 극이라고 하고, 모든 만물의 理는 태극이라 하였다. 태극은 천지만물의 理의 總和이므로 태극 가운데 만물의 理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 만물은 理만으로는 구체적 형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 형상을 가지려면 재료가 필요하다. 이 재료가 바로 음양이고 기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만물은 음양이 없이 성립할 수 없으며, 음양은 理가 없이는 形象化될 수 없다고 한다. 주자는 태극은 形而上의 道이고, 음양은 形而下의 器라 하였다. 즉 주자는 理氣二元論을 수립하였고, 이것을 性과 情에 연관지어 인성론까지 정립하였다.

주자학에서 우주론은 우주 만물의 근원은 태극이라는 理이며, 理가 사물에 들어가서 자연법칙을 낳고, 사람속에 들어가서 인간의 본성인 仁義禮智를 낳는 근원이 된다고 한다. 仁은 사랑과 박애정신을 뜻하고, 義는 사람으로서 지켜야할 도리를 말한다. 禮는 인간이 지켜야할 당연한 예절이고, 智

21) 上揭論文, p. 104.

22) 事事物物, 個有個極, 是道理極至. 蔣元進曰如君之仁, 臣之敬, 便是極, 先生曰, 此是一事一物之極, 總天地萬物之理. 便是太極, 太極本無此名, 只是個表德.

는 사물의 옳고 그름과 선악을 분별하여 행동할 줄 아는 지혜를 말한다

Ⅲ. 陰陽合德의 意義

음양합덕은 대순사상의 한 사상이다. 따라서 음양합덕의 의미는 대순의 의미를 먼저 살펴 보아야 하겠다. 여기서는 대순의 의미와 음양합덕의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大巡의 意味

大巡이란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강증산 상제께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혁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려고...”²³⁾하였다는 데에서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대순은 강증산 상제께서 우주를 순환하다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강세하였다는 의미와, 삼계의 개혁을 통한 지상선경 건설의 큰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순이 圓이며 원이 무극이고 무극이 태극이라”고 한다. 즉 대순의 의미는 원, 무극, 태극을 총칭하고 있어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다.

첫째, 대순은 하나의 원으로 우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우주를 형성하는 태양, 지구, 달, 다른 혹성들도 모두 커다란 원형이다. 이러한 우주가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외계에서 볼 때 확인할 수 있지, 그 안에서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원형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다. 한편 과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였지만, 아직까지 우주의 실체는 신비에 쌓여 있다. 그리하여 대순은 우주를 의미하며, 동시에 인간이 알 수 없는 무한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둘째,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지구와 혹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일정한 순환운동을 하고 있다. 별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그리고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순환운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순환운동을 통해서 계절이 바뀌고, 밤과 낮이 생기며 우주 만물이 성장하고 소멸한다. 우주가 규칙적인 순환운동을 영속

23) 典經, 권지 제1장 11절, p. 266.

적으로 반복하는 일정한 법칙에 따라 만물은 생성과 소멸을 하게 된다. 따라서 대순은 우주의 순환운동에 의해 나타나는 자연의 신비로운 법칙과 변화를 뜻하는 것이다. 대순은 우주의 순환과 우주의 순환에 의해 나타나는 자연현상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대순은 무극이고 태극이라고 한 것은, 앞에서 살펴 본 역경, 도가사상, 유가사상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도와 음양사상을 통합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대순사상의 우주관도 우주의 변화가 없던 세계를 무극이라 한다. 무극이란 우주의 생명이 음과 양으로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로서,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절대적인 中, 虛, 無의 상태를 말한다.

태극은 비어있는 무극상태에서 음과 양으로 나뉘어지고, 음양이 대립하는 상대성 운동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체가 창조되고 성장·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무극은 무형의 근원이고, 태극은 생명창조의 모체라 할 수 있다. 태극은 서로 성질과 경향이 다른 음과 양으로 나뉘어져 경쟁할 뿐만 아니라, 통일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음과 양은 각기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상호의존관계에 있다. 양은 홀로 설 수 없고 음을 얻은 후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음을 기초로 삼고, 음은 스스로 나타날 수 없으므로 양을 얻은 후에 나타나게 된다. 대립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음양이 상호 배타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합하여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음양은 서로 대립하는 상반과 상호의존하는 응합의 반복에 의해 만물이 생성되고 발전하며, 우주는 조화를 이루게 된다.

대순은 음양의 相反應合인 대립과 통합을 반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연의 생성과 변화는 분열(태극)과 통일(무극)의 순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순환과정을 대순이라 할 수 있다. 즉 대순은 우주 만물의 생성원리이며, 사물이 창조된 곳으로 돌아가고 새롭게 다시 창조되는 순환을 영속적으로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음양의 변화에 따라 우주의 모든 존재가 변화하고 순환한다는 것은 서양에서도 주장되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Heracleitos는 “모든 존재는 流轉하고 끊임없이 변동·생성하며 소멸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였다.²⁴⁾ 현실

24) Frederick Engels, *Anti-Duhring*, trans., Emile Burns (New York : International Publishers,

세계, 인간역사, 인간의 지성 등 모든 것은 본래 상태대로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변동되고 생성·소멸된다고 한다. 우주 만물, 인간의 역사와 지성 등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모든 변화현상은 대순과 같은 의미이다.

넷째, 대순은 음양합덕을 의미한다. 자연의 생성과 변화가 음양의 대립과 통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음양합덕을 뜻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은 우주 만물의 변화는 천지공간에 가득찬 우주생명(氣)의 작용이며, 그 氣 속에 담겨있는 자체적인 창조와 변화운동의 원리를 우주정신(理)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우주의 섭리를 대순사상에서는 노장사상과 같이 道로 보고 있다.

道가 있으니 도에 德이 있고, 덕에 化가 있고, 화에 育이 있고, 육에 창생이 있다. 창생에 역조가 있으며, 역조에 원대가 있으며, 원대에 당요가 있다. 기초동량 끝. 25)

우주 만물의 생성은 도에서 시작되고, 도에 의해서 성장하고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易經에서 말하는 一陰一陽, 또는 노자가 말한 “道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음에너지 등을 등에 지고 양에너지를 가슴에 안고 음에너지와 양에너지가 통일된 힘으로써 조화를 이룬다”고 한 것과 같은 의미이다. 그리고 장자가 氣는 만물의 기본원질인데(通天下—氣耳), 그것이 음양으로 나뉘고 음양의 기가 서로 교류하여 새로운 조화를 형성하기 때문에, 우주는 만물의 시작이고 만물 형성의 모체라고 주장한 말과도 같은 의미이다.

道에 작용하는 것은 德이고 덕이 사람을 일으킨다. 덕에 의해서 化(변화)가 이루어지는데, 化는 만물이 성장하고 쇠퇴(消長)하고 운행하는 변화의 이치를 말한다. 만물이 소장하는 변화는 기르고 돌보는 育에 의해 이루어지고, 育에 의해서 창생에 이르게 된다. 도에서 창생에 이르는 德→化→育 과정은 바로 道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德→化→育 3과정을 3德이라 하는데, 3德은 天德, 地德, 人德을 의미한다. 즉 도와 덕은 하늘의 덕이고, 화는 땅의 덕이며, 육은 인간의 덕이라는 것이다. 3德은 각기 개별성을 갖고 있지

1939), p. 27.

25) 曰有道 道有德 德有化 化有育 育有蒼生. 蒼生有億兆 億兆有願戴 願戴有唐堯 基礎棟梁終. 典經, 교운 제1장 66절, p. 186.

만 상호작용을 한다. 천상세계, 지상세계, 인간세계의 3계는 각각 개별적이지만,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관된 조화를 이루게 된다.

三界가 각기 작용하는데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만물은 太極→陰陽→五行→萬物化生의 순리에 의해 성장소멸하게 된다. 오행설에서는 만물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쇠퇴하는 것은 상극법칙과 상생법칙에 의한다고 한다.²⁶⁾ 상극법칙이란 “木剋土, 土剋水, 水剋火, 火剋金, 金剋木을 말한다. 오행설에서 상극법칙이란 한 쪽이 다른 쪽을 이긴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木剋土는 木이 土를 이긴다는 것이지, 土도 木을 이긴다는 의미는 아니다.

상생법칙이란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水生木을 의미하는데, 상생법칙도 한 쪽이 다른 쪽을 도와 준다는 의미이지, 양쪽이 서로 도와 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火生土라 할 때 火가 土를 도와 준다는 의미이지, 土도 火를 도와 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순사상에서도 상극법칙에 의해 음양이 대립하고 반발하여 만물이 생성되고 변화하는데, 성장이 다 되었을 때에는 상생법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대순사상은 상극법칙과 상생법칙이 적용되는 것을 조화라 하는데,²⁷⁾ 오행설에서 설명하는 상극법칙과 상생법칙과는 다르다. 상극법칙은 양쪽이 서로 이기려고 경쟁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상생법칙도 양쪽이 서로 잘되도록 도와 준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특히 상생법칙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행설에서 상극관계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상생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상극관계에 있는 것을 조화시키는 것은 상생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상극관계가 상생이 되는 원리를 전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수는 화에서 생하고 화는 수에서 생하며 금은 목에서 생하고 목은 금에서 생하니 그것을 쓰는 법을 안 연후에야 가히 신인이라 할 수 있으리라. 陰이 쇠하고 陽이 생하고, 양이 쇠하고 음이 생긴다. 生殺의 도는 음양에 있으니, 사람이 음양을 바르게 사용한 연후에야 인생이라 할 수 있으리라. 사람이 陽이 되고 신이 陰이 되어, 음양이 서로 합한 연후에야 변화의 도가 있으리라. ²⁸⁾

26) 오행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金泰鎭, 오행상극설과 진화론(서울 :삼한출판, 1990), pp. 28-90 參照.

27) 張秉吉, 大巡宗教思想(서울 : 大巡宗教文化研究所, 1989), p. 56.

28) 水生於火 火生於水 金生於木 木生於金 其可用知然後 方可謂神人也. 陰殺陽生 陽殺陰生 生殺之道 在於陰陽 人可用陰陽然後 方可謂人生也. 人爲陽 神爲陰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也. 典經, 재생 43절, p. 309.

오행설에서는 水剋火라하여 수가 화를 이기기 때문에 상극이라 하지만, 대순사상에서는 水는 火에서 생하게 할 수 있으므로 상생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한다. 상극관계인 水剋火가 상생관계가 되는 것은 수력발전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예증할 수 있다. 즉 음과 양에서 분화된 오성은 상극 하기도 하지만, 상생에 의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상극관계에 있는 것을 상생관계로 변화시킬 때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화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도 음과 양은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기와 음기는 精氣라고 하는데, 음과 양은 서로 쇠하기도 하며 많아지기도 한다. 양기와 음기의 成衰와 많고 적음은 공간과 시간에 따라, 그리고 우주만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정기의 변화현상은 정기의 운회에서 나타난다. 운회는 정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기의 회로와 음기의 회로가 각각 따로 있다고 한다. 양기의 회로는 乾道라 하고 음기의 회로는 坤道라 한다. 우주만물은 건도와 곤도의 운회에 따라 존재하고 변화하는데, 이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인간의 도리를 행할 수 있다고 한다.

음양합덕은 음기와 양기가 계속적으로 변화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인간이 양이 되고 신이 음이 되는 음양합덕이 이루어질 때 완전한 조화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를 도라 한다. 음양의 대립과 통일에 의해 우주 만물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자체가 음양합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음양합덕은 영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를 대순이라 할 수 있다. 우주내의 모든 만물이 음양의 대립과 통일에 의해 생성되고 변화하는 것은 영속적으로 순환한다는 의미로 대순이라 할 수 있다.

2. 陰陽合德의 意義

대순은 음양합덕이라 할 수 있는데, 음양합덕이란 음과 양이 각기 가지고 있는 덕을 화합시킨다는 의미이다.²⁹⁾ 음양합덕은 음과 양은 각기 고유한

29) 鄭大珍, “大巡思想 研究를 위한 提言”, 大巡思想論叢 第1輯(大巡思想學術院, 1996), pp. 2-4. ; 金正泰, “大巡眞理의 宗旨에 관한 研究”, 同論叢, p. 305.

덕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덕들을 결합하여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한다는 뜻이다. 우주의 만물은 서로 대립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음양사상을 발전시켜, 음덕과 양덕을 결합하여 만물의 창생과 변화의 이치를 설명하고, 우주와 인간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철학적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음양합덕은 인본주의 정신을 주요 특성으로 하고 있다. 인간을 중심으로 사상을 전개하여, 인간생활과 인격의 올바른 형성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음양합덕은 음과 양이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덕을 상대로부터 보완하여,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음과 양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 결합이 많은데, 상대의 덕으로 결합을 보충할 때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또는 음과 양이 개별적으로는 갖고 있지 않은 성질을, 상대로부터 도움을 받아 완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는 음과 양이 따로 존재하면 성취할 수 없는데, 음과 양이 결합함으로써 조화를 이루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음양합덕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고 성장하고 소멸하며,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도라 한다. 노자가 도에서 음양이 생기고, 음양에 의해서 만물이 생성되고 변화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음양합덕은 궁극적으로 도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사물을 인식할 때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沒我一體가 된다고 하였다. 도는 만물의 생멸과 변화를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양합덕은 도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연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음양이 갖고 있는 각각의 덕이 결합하는 음양합덕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음과 양이 일정한 수준의 성장이 필요하다. 음과 양이 갖고 있는 각각의 특성이 발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숙해야만 한다. 남녀를 음양으로 볼 때 유아기와 사춘기에는 상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결합할 수 있는 상태로 성숙하지 못한 단계이다. 즉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성에 대한 막연한 동경은 하지만, 상대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성인이 되어야 남녀는 상대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결합할 수 있게 된다.

음양합덕의 의미는 음양사상과 유사하지만, 음양사상과는 다른 면들이 많다. 음양합덕은 음양사상을 기초로 하지만, 음양사상을 새로운 사상체계로 구성한 것이다. 음양합덕의 특성과 사상적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양합덕에서는 만물의 생성과 성장·발전에 있어서 각기 다른 법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역사발전을 天尊時代 → 地尊時代 → 人尊時代의 차례로 전개된다고 보고 있다. 천존시대와 지존시대는 선천세계라 하고, 인존시대는 후천세계라 한다. 선천세계는 상극과 분열로 원한이 가득찬 세계이고, 후천세계는 상생과 조화와 통일이 이루어져 모든 인간이 존중받고 해원이 되고 빈부차별이 없어지는 이상사회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선천세계와 후천세계에서는 음양합덕을 하는데, 각기 다른 원리와 법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선천세계는 상극법칙에 의해서 음양이 대립하여 성장하게 된다. 음양과 같이 대립물들의 경쟁과 충돌로 자연은 스스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를 자연의 자기운동이라 한다. 즉 자연의 변화와 조화는 자연에 내재하는 서로 대립하는 성질과 경향이 경쟁하는 상극법칙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인간사회에서도 성장과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상극법칙에 의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경쟁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한다. 갈등은 서양에서도 종교적 문헌에 많이 반영되어 있고, 세계의 모든 종교에서도 갈등은 주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Heracleitos는 “모든 사물들은 투쟁을 통하여 발생하고 소멸해 간다”³⁰⁾고 하면서, 모든 종교적·정치적 주장에는 우주의 구조와 갈등이 불가분하게 얽혀 있다고 보았다. 모든 발전은 대립적인 여러 힘이 빚어내는 양극간의 화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낮과 밤, 겨울과 여름, 전쟁과 평화, 과잉과 기근 등이 모두 포함되고, 이념대 이념, 인간대 인간, 남자대 여자, 계급대 계급, 민족대 민족 들의 투쟁을 통하여 조화를 이루고 세계가 형성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기와 반대되는 것을 필요로 하며, 갈등과 투쟁에 의해 변화된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는 변증법적 사고 모형이 되었다. 사회진화도 생물의 진화와

30) Howard Becker and Harry Elmer Barnes, *Social Thought from Lore to Science*, (New York : Dover Publications, 1961), p. 705.

마찬가지로 생존하였다는 것은 경쟁에서 승리한 최적자로 보고 있다. 찰스 다윈의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이 진화에 결정적이라는 진화론이 사회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문화적 진화는 집단갈등의 결과라 하기도 하고, 인류 역사는 통제권을 획득하기 위해 끊임없는 투쟁의 산물이라고도 한다.³¹⁾ 이러한 갈등과 투쟁에 의해서 인류는 성장하고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둘째, 모든 만물이 경쟁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지만, 인간사회에는 경쟁만 존재하면 갈등과 투쟁으로 불안정해진다. 자연과 인간사회가 적자생존의 원리만 적용된다면, 불법적인 폭력이 정당화되고 자행되어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사회에는 경쟁과 동시에 상호 협력하는 상생법칙이 필요하다. 음양합덕사상에서는 만물의 생성과 쇠퇴는 상극법칙에 의하지만, 결실이 되면 상생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완전히 조화로운 상태가 되는 음양합덕을 이루려면 서로 도와 주는 상생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주만물이 공존공생하고 공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만이 잘되려고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상생법칙에 의해 생활해야 한다고 한다.

셋째, 상생법칙에 의해서 음양합덕이 이루어지려면, 음과 양이 서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만 한다. 자기와 성질과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부정하고 배척하는 적대적 관계가 아니다. 자기와 다른 특성을 가진 상대가 존재함으로써, 자기자신도 존재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즉 자기가 갖고 있는 성질과 성향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질과 성향의 가치도 존중하는 것이다.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성질과 성향은 전혀 다른 성질과 성향을 갖고 있는 것에 의해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인식해야만 한다.

넷째, 음양합덕은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동일시하는 조화사상이다. 만물은 동일한 본체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만물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개체 생명은 우주에서 생성되었고, 최종적으로 우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31) James H. Meisel, (ed.), *Pareto & Mosca*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56), p. 13.

개체 생명은 우주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음양합덕은 자연과 인간을 동일시 하며 인간의 존재는 우주적 차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양합덕은 우주와 인간을 동일시하는 天人合一을 강조한다. 天人合一은 인간세계의 질서를 자연계의 질서와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규범으로 삼는 것이다. 우주에는 음과 양이라는 두 기운이 총만되어 있고, 이러한 음양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에도 침투하여 작용한다고 믿고 있다. 음양을 통해서 인간과 자연 사이에는 필연적인 감응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상이다.

다섯째, 음양합덕은 인간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본원리이며 법칙이라 할 수 있다. 남자와 여자는 음양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인체도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체의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감신경은 양이라 할 수 있고 부교감신경은 음이라 할 수 있다. 교감신경은 낮에 긴장하고, 부교감신경은 밤에 긴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체에는 양전기와 음전기가 있으며, 근육도 신장하는 伸筋과 굴절하는 屈筋이 있다. 따라서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기도 한다.

음양의 원리에 의해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주의 순환원리는 인간 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음양의 이치를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다. 음양합덕은 인간과 자연과의 연관성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 연관하여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학이며 사회철학의 성격을 갖고 있다.³²⁾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사회는 다종다양한 사람들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각 개인은 재능, 흥미, 능력, 신분, 재산 등이 다른 상태에서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상호 도움을 주고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상극법칙에 의해 경쟁만 하는 사회는 안정과 평화를 이룰 수 없고, 불균형과 부조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생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인간이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요하

32) Hans Joachim Storig, *Kleine Weltgeschichte der Philosophie : in zwei Banden* (Fischer Taschenbuch Verlag), 河在昌 譯, 세계철학사 : 상권(서울 : 培材書館, 1992), p. 148.

지만, 경쟁만 하는 상태에서는 갈등과 투쟁으로 인한 원한이 쌓이게 된다. 자기만이 잘되려고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 주는 상생이 실현되어야 한다.

여섯째, 음양합덕은 中庸의 의미가 있다. 중용은 음양합덕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음양합덕을 실현할 수 있는 덕목이라 할 수 있다. 朱熹는 중용을 “치우치지 않고 기대지 않아 지나침도 미치지 못함도 없는 평상의 도리(不偏不倚 無過不及 而平常地理)”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程明道는 중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³³⁾

中의 이치는 지극하다. 음만으로는 생성되지 않고 양만으로도 생성되지 않는다. 치우치면 禽獸가 되고 중이면 사람이 된다. 중인즉 치우치지 않음이요, 庸인즉 바뀌지 않음이다. 중만으로는 그 의미를 다하기에 불충분함으로 中庸이라 했다

음과 양이 각기 따로 존재하면 생명을 창조할 수 없고, 결합하여 균형을 이루어야 만물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음과 양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짐승과 같은 행동이고, 中의 태도를 취하면 사람의 행동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이란 음과 양이 결합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음과 양이 결합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은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불완전함으로 영속성을 뜻하는 庸을 부가하여 중용이라 한다는 것이다. 즉 중용은 음과 양이 결합하여 완성을 하고 조화를 이루며, 이러한 조화가 영속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중용사상의 핵심은 中에 있다. 중이란 원래 旗의 象形으로 중앙, 중심, 적중 등의 뜻이 있다. 그러나 중은 중간만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두지점 사이의 중간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중용은 수학적인 의미의 중간개념이 아니라, 산술적 방법으로 얻어지는 결론도 아니다.

중용은 현실적 상황과 경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간의 이성적 원리에 의해 얻어지는 합리적 판단을 말한다. 중용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에 있어서, 이성과 조화되는 행동으로 누구에게나 가장 적합한 도리라 할 수 있다. 중용은 인간의 이성에 따라서, 정당한 목적을 갖

33) 車相輓 譯解, 大學中庸(서울: 新韓出版社, 1982), p. 148.

고 있는 옳은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다. 중용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양극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덕을 실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양극의 판단과 행동은 지나치거나 부족하여 덕스럽지 못하다.

Aristoteles도 중용의 실천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하였다. 인간은 이성적 원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이성적 원리에 의한 삶이 완전한 행복을 얻는 윤리라고 하였다. 중용의 덕목을 용기, 절제, 寬厚, 금지, 의분 등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용기는 비겁함과 무모한 행위의 중간이고, 그저 용맹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절제는 쾌락과 고통의 중간이며, 방탕한 것과 무관심한 것의 중간이다. 寬厚는 재산의 획득과 소비에 대한 중간이며, 소득이 적으면서 지출을 많이 하는 것을 낭비라 하고, 수입이 많으면서 지출이 지나치게 적은 것을 인색이라 한다. …… 금지는 허영심 혹은 교만과 비굴함의 중간이고, 자기 과대평가와 과소평가의 중간이다. 의분은 질투와 악의와의 중간이고, 타인이 잘되는 것을 보고 마음을 아파하는 것과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과의 중간이다. 이러한 실천의 덕은 이성의 인식과 계획에 따라서 언제나 조화로운 길을 행동하려는 생활 그 자체의 과정이 된다. 이런 생활이 중용의 생활이요, 덕스러운 정의로운 생활이다.³⁴⁾

Aristoteles는 행복은 육체적 쾌락이나 명예, 재산, 우정, 정치권력 등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원리에 의한 중용의 덕목을 실천할 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인간은 우주적·보편적 원리를 사색하고, 이 원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성함과 존엄성을 인정받게 된다고 한다. 우주적·보편적 원리는 음양합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음양합덕은 우주와 인간을 동일시하며 조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Aristoteles의 덕목 실천은 중용의 中和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³⁵⁾ 中和

34) 金樹澈, 현대인을 위한 道德과 倫理(서울 : 敎文社, 1987), pp. 217-218.

35) 사람은 내면생활에 있어서 회로애락의 情이 있는데, 정이 발한 상태와 발하지 않은 상태로 구분할 수 있다. 회로애락이 발하지 않은 상태는 감정의 기복이 없는 중의 상태인데, 이는 타고난 본연의 性의 상태라 한다. 그리고 회로애락의 정이 생겨도 절도에 맞는 것을 和라 한다. 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것이

를 실현하려면 낳고 또 낳아 그치지 않는(生生不已)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중용에서는 誠이라 한다. 성이란 부단한 노력,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것, 집중, 정진 등을 요건으로 한다. 성은 하늘의 도요, 성해지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라 한다. 저절로 참된 것은 하늘의 도고, 참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인간의 도라는 것이다. 성이 극치에 도달하였을 때, 타고난 본연의 성이 그대로 실현된다. 인간이 스스로 성을 실천하면 천지만물의 化育을 돕게 된다고 한다. 성은 우주를 움직이는 생명체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용에서는 성은 사물의 처음이요 끝이니, 성이 있지 않으면 사물은 없다(誠者 物之始終 不誠無物)고 하여 우주와 인간의 모든 문제를 성에 귀결시키고 있다.

음양합덕을 인간사회에서 실현하려면 중용을 실천하여야 한다. 음적인 사람과 양적인 사람들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려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따를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사회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Aristoteles가 주장하고 있는 이성적 원리에 의한 판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일곱째, 음양합덕은 공리주의(utilitarianism)가 주장하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과도 관련이 있다. 공리주의는 삶의 목적과 윤리적 평가기준을 개인의 쾌락보다는 사회 전체의 공중적 쾌락을 강조하는 윤리관이다. 이기주의에서 일어난 모순과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의 전체적 행복을 추구하여야만 한다. 공리주의는 사회에서 악은 최소화하고, 共同善은 최대한 실현하려는 윤리관이다.

공리주의를 음양합덕과 비교하면 이기주의는 상극법칙에 의한 경쟁을 하는 것이고, 공동선은 상호 협력적인 상생법칙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존재라 할 수 있는데,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이기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갈등과 투쟁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행복을 실현할 수 없으며, 공동체의 행복도 실현할 수 없다. 궁극적 선으로서의 행복은 모든 사람들의

기 때문에 최적의 法道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中和는 인간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하는데 기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車相轅 譯解, 前掲書, p. 148.

공통된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같이 행복해질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즉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실현은 상생법칙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IV. 陰陽合德의 思想的 價値

음양합덕사상은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신세대 과학, 또는 새물결 과학(new wave science) 등 신과학 운동(new age science)을 제창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대순사상과 같은 우주관을 주장하고 있다. Fritjof Capra 교수로 대표되는 신과학 운동의 주창자들은 물질의 본질과 마음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현대문명의 위기는 근대서구세계를 약 300년간 지배해온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우주관론, 베이컨의 과학적 방법론, 뉴턴의 고전 물리학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모든 현상을 단편화하고 세분화하는 분석적 사고와, 물질과 정신, 이성과 감성, 가치와 태도,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는 이원적 기계론에 원인이 있다고 한다.

실제 세계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기존에 사용한 인식과 사유의 방법들로서는 우주와 인간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인식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한다. 이원자 세계의 모든 소립자는 다른 소립자의 속박상태에 있으며, 모든 소립자는 다른 소립자를 상호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모든 물질은 그 물질을 형성하는 모든 부분들의 자기 조화성에 의해서 전체 구조가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데카르트와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탈피한 새로운 세계관이 필요하다고 한다. 과학자들은 물질의 본질과 인간의 마음과의 상호관계에 대해 깊은 통찰을 하고 새로운 우주관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는 생물적·심리적·사회적·환경적인 제 현상들이 전체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우주는 긴밀히 연결된 유기체이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역

동적 체제이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현상도 상호 연관성과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는 유기체적 체제로 이해해야만 한다고 한다. 신과학 운동자들은 원자와 분자로부터 대우주에 이르는 모든 개체들은 각각의 단계별 수준에서 전체를 이루고, 그들 간의 관계나 그들보다 높은 단계의 유기체와의 관계는 순환적이고 동시적이라 한다. 이들의 상호관계는 고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인 상호관계에 의해서 스스로를 조직한다고 한다. 대순사상의 순환적 개념과 같이 우주는 상호 의존적이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신과학 운동은 유기적이고 전체적이며 보다 균형있는 가치관을 정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³⁶⁾ 이러한 주장들은 대순사상의 음양합덕과 유사한 내용이다.

한편 음양합덕사상은 현대사회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Daniel Bell 이 “이데올로기의 종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종식되고, 음양합덕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데올로기의 세계는 흑과 백의 대립적인 고정관념에 의해 갈등과 투쟁을 하는 세계관으로 음양의 상극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상태이다.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세계는 선과 악, 또는 적과 아군의 관계만이 존재하여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가 고도화되고 있는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이데올로기에 의한 대립과 투쟁은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현실문제들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양자택일과 같이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여러 목적과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선택해야만 한다. 이른바 음양합덕적 사고와 의식을 갖고 접근해야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특히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은 양 진영간의 군비경쟁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 항상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 세계는 이데올로기에 의한 투쟁의 장이 되었고, 언제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극한적인 대립을 하여 왔다. 국지적인 전쟁도 이데올로기에 의한 세계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존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양 진영은 전쟁에 대비하고 상대를 압도하기 위해 가공할 무기개발과 군비확장에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여 왔다.

36) 金斗哲, “신과학 운동에 있어서의 基底概念의 타당성”. 新科學硏究會 編, 新科學運動 (서울 : 汎洋社出版部, 1986), p. 14.

양 진영은 국민의 복지 증진이나 경제개발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을 군사비에 과잉 투자하는 소모적인 경쟁으로 모두 다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극한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되던 세계는 한계에 도달하여 화합을 하는 양상으로 변화되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적 대립은 더 이상 의미를 상실하였고, 음양합덕의 상생관계로 변화되었다.

오늘날 학문연구를 하는데 있어서도 음양합덕적 접근은 매우 필요하고, 실제로 많이 적용하고 있다. 어떠한 현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다른 분야의 학자들과 공동연구를 하거나, 이질적인 다른 학문분야의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學際的 研究(interdiscipline)를 하고 있다. 서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 학문분야들이 교호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음양합덕사상은 조화론적 우주관으로서 현대사회에서 실현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음양합덕사상과 실현방안들은 현대사회에서나 미래사회를 준비하는데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음양합덕의 사상적 가치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음양합덕에 내포된 사상적 가치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음양합덕과 관련된 사상적 가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조화, 민주주의 이념, 가치참조, 자연주의적 윤리관 등으로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調和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서 자신의 가치관에 의한 신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삶을 영위한다.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인간은 가치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여러 가치 중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모색한다. 인간은 생활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가치와 다른 사람의 가치와의 일치, 또는 공존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발견하고, 보편적 가치에 의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 인간이 보편적 가치에 따라 생활하려는 것은 바로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보편적 가치에 의한 조화로운 삶은 인간이 하나의 인격체로 성숙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인간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조화로운 삶을 추구한다고 해서 개인의 주체성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 참다운 조화의 의미는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문화와 민족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화는 동일한 의식구조를 갖고 있는 사회에서의 조화만이 아니라, 의식구조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질적인 문화와 다른 민족들 간에도 통일성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어야 참다운 조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음양합덕에서의 조화는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 인간과 인간과의 조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음양사상은 天人合一을 전제로 전개되고 있는데, 天人合一은 두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하늘과 인간을 동일한 가치로 존중하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인간은 우주에서 태어났고, 자연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주와 자연법칙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에도 영향을 미쳐 작용한다고 믿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인간사회에 자연적 질서를 적용하는 것이다. 만물은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존재하고 生長消滅하게 되는 것과 같이, 인간사회도 음양에 원리에 따라 변화되고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즉 자연적 법칙과 원리는 인간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고, 인간이 존중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조화란 관련된 요소들이 어떤 부분으로 편중되지 않고 적절하게 배분되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음양합덕적인 조화를 인간사회에 적용한다면 共感的 理解라 할 수 있다. 공감적 이해란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다. 모든 개인은 각기 독특하고 유일한 가치있는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과 결합하여 사회를 이루고 산다. 각 개인들은 의식과 사고방식, 신념과 가치관 등이 각기 다르다. 다양한 개인들이 어떠한 문제에 대해 통일된 의견을 얻기 위해서는, 타인의 입장에서 인식하고 판단하는 공감적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음양합덕의 조화와 같은 개념을 변증법적 논리학에서는 '대립물 통일의 법칙(모순의 법칙)'이라 한다. 변증법적 논리학에서는 객관적 실재(사물 또는 현상)를 종합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서로 대립적인 두 측면이 통일되어 있는 법칙을 발견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를 '대립물 통일의 법칙'이라

하는데, 대립물 통일의 법칙은 두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모든 사물(현상)의 변화와 발전은 서로 성질과 경향이 다른 대립적인 것들이 투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둘째는 대립적인 성질과 경향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상호이행이 이루어진다. 즉 대립물 통일의 법칙은 음과 양이 대립하여 경쟁을 하지만, 하나로 통일되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로 음양합덕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음양합덕의 조화와 관련된 개념으로는 균형, 통합, 타협, 협동, 사회적 형평과 사회정의, 질서, 합리성, 적합성, 적절성, 상호주관성, 중용, 분수 등 매우 많다. 음양합덕의 조화와 관련된 개념들은, 추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추상적인 것들로는 음양합덕의 조화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들로서 합리성, 적합성, 적절성, 상호주관성, 중용, 분수 등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 사회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균형, 통합, 타협과 협동, 질서, 사회적 형평과 사회정의 등이라 생각한다. 여기서는 음양합덕의 조화와 관련된 것들 중 사회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음양합덕의 조화는 균형을 의미한다. 균형도 조화와 같이 관련된 요소들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인간의 사고나 사물에 대한 인식과 평가, 행동은 균형적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균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정치에 있어서도 권력의 균형을 위해 삼권분립제도를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권력이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되지 않게 한 권력분립은 권력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민주정치에서는 양당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도 정치권력을 행사하는데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도 균형이 이루어져야, 지배자가 독선적인 통치를 하지 못하고 民意尊重의 정치를 할 수 있다.

경제에 있어서도 균형은 매우 필요하다. 시장에서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야 적절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으며, 한 나라의 무역에 있어서도 수입과 수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안정된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노동자와 기업가간에 균형을 이루어야, 노사관계가 평

화롭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다.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과 인간들에 있어서도 균형은 필수적이다. 어떠한 조직에서도 구성원들 상호간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사회의 수 많은 조직들간에 균형이 파괴되면 사회는 안정을 유지할 수 없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간에 있어서도 불균형적인 관계는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갈등과 투쟁의 원인이 된다.

정신과 물질에 있어서도 균형은 매우 필요하다. 산업사회에서는 비인간화 경향, 무력감과 소외의식, 물질만능주의 등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전하였는데, 물질문명이 정신문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심각한 정신적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 즉 고도의 물질문명의 발달로 정신문화와의 불균형이 커지면, 인간으로써의 가치를 상실한 비인간화와 물질에 예속되어 몰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물질문명과 정신문화의 균형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둘째, 음양합덕의 조화는 통합의 의미가 있다. 사회는 개성과 利害關係가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대립과 충돌이 나타나게 된다. 사회에 내재된 갈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점점 더 증폭되고 심화되면 분쟁이나 투쟁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사회에서 나타나는 대립과 충돌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통합해야 한다. 통합은 사회가 안정되고 유지·존속하는데 필요한 주요 기능이다.³⁷⁾

음양합덕은 대립적인 가치들이 적절하게 조화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통합이란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양합덕의 상호존중과 조화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

셋째, 음양합덕의 조화는 타협과 협동의 의미가 있다. 타협은 각기 다른 의견과 주장을 하나의 적절한 안으로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타협은

37) Talcott Parsons는 어떠한 사회체제라 하더라도 체제가 유지·존속하기 위해서는 ① 適應機能, ② 目的達成機能, ③ 類型維持機能, ④ 統合機能을 수행해야만 한다고 한다. Talcott Parsons and Neil Smelser, *Economy and Society* (New York : The Free Press, 1956), pp. 16-19.

서로 다른 대립적인 의견들을 하나의 통일된 의견으로 집약하는 것이다. 어느 한쪽의 의견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만드는 것이 타협이다.

인간사회는 본질적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대립적인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이해관계가 다른 주장들을 하나의 통일된 의견으로 집약하기 위해서는, 음양합덕의 상호존중이 필요하다. 상호존중은 자기 의견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적인 다른 의견도 존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존중을 할 때 다른 주장을 이해하게 되고, 자기의 주장을 양보하여 통일된 의견을 만들 수 있게 된다.

타협은 인간사회에 있어서 협동을 하게 하는 방법이다. 협동은 어떠한 일을 하는데 관련된 여러 사람이 협력적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이다. 어떠한 일을 하는데 협력은 강제적이기 보다는 자발적일 때 효과적이다. 조직에서 일을 하거나 공동체 사회에서 일을 하거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일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그 성과도 증대하게 된다.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는 방법은 타협이다.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경우 자기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비협조적이거나 소극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넷째, 음양합덕의 조화는 질서의 의미가 있다. 인간사회는 일정한 질서에 의해 유지되는데, 인간사회의 질서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인간이 생존해 나가는데 있어서 자연적 질서와 사회질서에 적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은 자연적 질서를 파괴하는 것과, 기존의 사회질서가 문제가 있거나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 등이 있다. 자연을 극복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은 간척지를 만들거나 저수지를 만들어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 산림훼손 등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과 같이 자연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사회변화와 필요에 따라 기존 법률의 개정, 또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 등과 같은 형태를 말한다.

어떠한 질서이든 기본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질서에 있어서 조화는 자연과 인간, 사회와 인간, 인간과 인간 등의 관계에 있어서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자연적 질서에 순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연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데에는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 자연을 개발하는 것은 부분적이라도 자연적 질서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생활의 편익과 자연적 질서를 동시에 고려하는 조화적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와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질서는 도덕성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의 질서는 윤리와 도덕,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회질서의 기본이 되는 윤리와 도덕, 법률과 인간생활과는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사회의 윤리와 도덕, 법률과 인간들이 조화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불행해지고 사회 부적응의 갈등이 야기된다.

다섯째, 음양합덕의 조화는 사회적 형평과 사회정의와도 관계가 있다. 형평이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념으로써 기본적으로 공정(fairness)을 의미한다.³⁸⁾ 형평이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한다면, 사회적 형평은 사회적으로 정치적·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불리한 상태를 개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형평은 현대에서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복지사회란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빈곤층이나 소외된 계층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형평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국가에서 준거로 삼아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음양합덕은 사회의 여러 계층간에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음양합덕은 서로 이질적인 집단들이 결합하여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음양합덕의 조화가 이루어지려면 상위계층, 중간계층, 하위계층에 있어서 영향력이 적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하위계층들의 생활과 지위 향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적 형평은 1970년대 미국에서 신행정(New Public Administration)을 제

38) Fred M. Frohock, *Public Policy : Scope and Logic*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79), p. 203

창하면서 제기된 행정이념이다.³⁹⁾ 미국 행정이 능률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불평등과 불균형이 심화되자, 누구를 위한 능률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능률추구에 대한 회의론이 나타났다. 능률성 추구가 경비의 저렴과 신속한 업무처리만을 강조하는 기계적 능률이 아닌, 사회적 목적이나 사회적 성과를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사회적 능률의 개념이 제시되었다. 신행정에서는 사회적 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사회적 형평을 실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행정이 대내적·대외적으로 모든 면에서 공정하고, 특히 사회적으로 불리한 소외계층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여 社會正義를 실현할 것을 강조한다.⁴⁰⁾

사회정의는 '공정한 사회적 합의'로서, 사회의 기본적인 원칙이며 윤리의 지배적 원리라 할 수 있다.⁴¹⁾ 정의는 John Rawls에 따르면 두 개의 원칙이 있다고 한다.⁴²⁾ 첫째 원칙은 모든 사람은 비슷한 자유를 갖고 있으며, 기본적인 자유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합의이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합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익이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과, 모든 것이 개방된 상태하에서 직무와 지위에 대해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행정은 행정목표로 생활의 질 향상, 인간의 존엄성 실현, 인간 위주의 행정 등을 제시하면서, 훌륭한 행정이란 정치적·경제적으로 하위층에 있는 대중에게 사회적 형평을 베푸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행정은 사회적 형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체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입각한 고객위주의 행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民主主義의 理念

음양합덕은 대순사상의 인존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인존사상은 인간

39) H. George Frederickson, *New Public Administration* (Alabama :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80).

40) 拙稿, "新行政과 社會的 衡平에 관한 考察", 行政論叢, 第5輯(京畿大學 行政學會, 1983), pp. 139-140

41) Fred M. Frohock, *op.cit.*, p. 237.

42)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p. 135.

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과 같이 존엄한 존재이므로,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로서 음양합덕의 정신이며,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기본이념이다.

인간은 독립된 개체로서 절대성을 갖고 있으며, 모든 인간이 각기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한다.⁴³⁾ 인간의 존엄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존중하여 모든 인간들을 획일화하지 않고, 개인의 특수한 성질을 존중해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개성을 존중하는데에서 구체화되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獨自性과 다른 어떤 것과는 바꿀 수 없는 特異性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개성의 존중은 음양합덕의 상호존중을 구체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각기 고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개인은 자신을 존중하는 동시에, 타인도 존중할 때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존할 수 있고, 나아가 전체 사회의 조화있는 통일도 가능하게 된다. 음양합덕은 서로 다른 성질이 결합하여 창조적인 형태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질적인 개성들이 사회에서 다른 개성과 조화관계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음양합덕의 상호존중은 민주주의에서 이념으로 삼고 있는 자유와 평등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떠한 구속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자 한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기 때문에 자기 의지대로만 살 수 없다. 자유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구속이 필요하다. 자유와 대립되는 구속과 제한은 모든 사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음양합덕의 원리에 따라서 서로 대립적 관계에 있는 자유와 구속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음양합덕의 상호존중의 정신에 따라,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존중할 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평등은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전제하에 성립된 이념이다. 인간은 절대

43) G. Kojima (ed.),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for Democratizations for Democratic Education in Japan* (Tokyo : The Institut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Service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1960), pp. 48-78

적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차별을 해서는 아니되고, 인간이라는 사실 만으로도 존중되어야 한다. 모든 인간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인존사상에서 평등은 실현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평등은 법적, 정치적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와 자격을 인정하며, 개인이 개성을 자유롭게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갖게 하여야 한다는 이념이다. 평등이념은 모든 인간들이 개성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형식으로 실현된다. 즉 평등은 모든 사람을 평균적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한 사회의 구성원은 모두가 평등한 인격의 존엄성과 가치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사회가 생산한 가치와 욕구 충족의 기회를 가능한 균등하게 배분받도록 하는 것은 민주사회가 지향하는 이상이다.⁴⁴⁾

오늘날 평등이념은 법적·정치적 평등은 물론,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평등까지도 지향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은, 기회의 균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과거에는 정치적·경제적 평등에만 관심을 두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적·문화적 평등도 보장해야만 한다. 정치적·경제적 평등은 일반화되어 있지만, 사회적·문화적 평등은 관심도 없고 매우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는 주거, 노동, 정보 등에 대한 권리가 정치적·경제적 권리 이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문화적 불평등이 빈부격차와 사회불안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삶의 인권에 기초한 지식 민주주의가 요청된다고 한다.⁴⁵⁾ 현대사회에서 빈자는 물질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식에 있어서도 빈곤하기 때문에 지식의 정의도 필요하다고 한다. 현대사회는 지식을 근거로 성립하고 있어, 정치적 지배도 지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지식에 기초한 정치적 지배가 개인과 민족의 정체성을

44) 李敦熙, “民主主義文化와 主體性”,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國家·生存 그리고 發展 (서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pp. 173-174.

45) 독일의 좌파 지식인인 한스 외르크 잔트밀러 교수는 현대사회는 민주적 지식 교환에 의한 평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식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중앙일보, 1973년 3월 11일, p. 12.

상실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세계를 해석하는데 대한 지식의 동등한 소유와 권리를 실현하는 지식 민주주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이 부와 사회적 지위의 원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식의 민주적 교환과 공유는 평등사회를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3. 價値創造

음양합덕은 음과 양이 대립하는 상대성 운동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체가 창조되고 성장·변화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음양은 서로 대립하는 상반과 상호의존하는 응합의 반복에 의해 만물이 생성되고 발전하며, 우주는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음양의 대립과 응합의 반복에 의해서 생명체가 창조되고 변화하는 것은 음과 양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음양합덕은 음과 양이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와 의미를 창출하는 가치창조로 이해할 수 있다.

음양합덕에 의해 창출된 가치는 음과 양이 본유한 가치 보다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 음의 성질과 양의 성질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데에서는 각각의 특성을 유지하는 상태이고, 결합하였을 때 비로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각각의 존재의의가 실현될 수 있다. 즉 음과 양이 각기 가지고 있는 특성과 능력이 결합하여 기존의 음과 양과는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새로운 특성과 능력을 갖게 될 수 있다. 음과 양이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보다는 음과 양이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때 음양합덕은 참다운 의미가 있다.

남자와 여자가 각기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수 없고, 결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때 남자와 여자의 존재가치가 발현된다.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종족보존을 할 수 없고, 문화의 전승도 할 수 없으며, 인간의 삶의 의미도 적어지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음양합덕은 인간생활의 기초이며, 인간의 존재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근본이라 할 수 있다.

음양합덕의 가치창조는 인간사회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필요하다. 음양합

덕의 가치창조는 생명체의 창조만이 아니라, 인간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류 문명의 발생과 문화의 발전은 음양합덕과 같이 기존의 존재하는 것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발전은 스스로의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창조성의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인간사회의 발전도 새로운 가치의 창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4. 自然主義的 倫理觀

인간사회에서 음양합덕의 최상의 상태는 老莊思想에서 말하는 無爲自然의 상태이다. 인간사회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순수한 자연상태와 같이 유지되는 무위자연은 음양합덕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인간사회가 자연의 법칙과 같이 변화하고 순환하는 것은 음양합덕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로서, 어떠한 부적응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이다. 음양합덕의 완전한 조화는 인간이 자연과 같은 상태로 살고 행동하는 것, 즉 道가 실현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리하여 음양합덕은 道의 경지가 되었을 때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無爲自然의 삶은 자연적으로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자연주의 윤리관과 관련이 있다. 자연적으로 산다는 것을 자연주의 윤리관에서는 ① 자연에 가까운 육체적인 모습을 갖고, 자연에서 인간의 육체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생활, ② 자연 안에 내재한 신성한 정신에 따르면서 자연의 본질적 특징, 법칙 및 그것의 방법에 준해서 움직여지는 생활, ③ 생물학적 역사를 통해 전개되며, 생활이 자연적으로 발달하고 생물학적 발전에서 벗어나는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진화론자들의 주장과 같은 생활 등을 말한다. 인간이 자연적으로 산다는 것은 자연법칙을 존중하는 것으로, 인간 존재의 본질에서 도덕적 법칙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⁶⁾

요즈음 자연적 생활(the natural life)이라는 것은 도시화된 인위적 삶의 생활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 적응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면서 자연 안에서 단순하고 부드럽게 조화하는 평화로운 삶을 말한다. 인간의 인공적 수단으로 얻어지는 물질적 풍요의 삶이 아니라, 자연상태

46) 金樹澈, 현대인을 위한 道德과 倫理 (서울 : 教文社, 1987), p. 205.

의 생활을 하면서도 안정과 즐거움을 느끼는 생활을 말한다. 자연적 생활은 자연주의적 윤리관에 의한 생활이라 할 수 있다. 자연주의적 윤리관은 지성보다는 감정 중심으로, 사회적 지위보다는 심리적·본능적 즐거움으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관념보다는 직접적 경험에서 인간의 생활과 행동을 설명하려는 태도이다. 도덕적 행위와 이유의 근거를 자연적 생활에서 합리화시키려는 태도가 자연주의적 윤리관이다.

V. 陰陽合德의 實現

아직도 우리는 선천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는 음양합덕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인간세계가 자연의 법칙, 즉 음양합덕을 실천하지 못하는데에도 원인이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선천세계는三界에서 하늘과 땅의 運度數에 부정과 불응이 생겨서 우주안에 있는 神明世界와 人間世界에 상극이 벌어져 진멸의 위기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선천에서는 인간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⁴⁷⁾라고 하였다. 삼계에 쌓인 원한으로 인간세계는 약육강식이 벌어지고 있으며, 하늘세계는 天氣가 고르지 못하여 재해와 재앙이 발생하고, 질병이 생겨서 우주 만물이 멸망할 수 있는 진멸의 위기에 있다고 한다.

선천세계는 상극법칙에 의해 음양의 분화와 경쟁으로 성장을 추구하였지만, 음양의 덕을 바르게 합하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선천세계는 抑陰尊陽으로 음양의 부조화와 불균형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음은 매우 약하고 양은 힘이 지나치게 커져서, 양이 음을 존중하지 않고 지배하여 음은 원한이 쌓이게 된 것이다.

인간은 각기 독립적인 개체로써 존재하고 있는데, 각기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다. 인간사회는 음적인 사람과 양적인 사람들이 경쟁을 하면서 살고

47) 典經, 공사 제1장 3절, p. 98.

있다. 인간사회는 여자와 남자,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 무식한 사람과 유식한 사람,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권력이 없거나 적은 사람과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 무능한 사람과 유능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 등이 공존하고 있다. 양적인 사람들이 음적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여, 음적인 사람들은 양적인 사람들에 대해 원함과 적개심을 갖게 되었다. 양적인 사람과 음적인 사람들이 상호 존중하고 도와 주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대립적인 상태에서 지나치게 불균형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음양의 부조화는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인간이 자연을 존중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도 불균형 상태에 있다. 자연은 각종 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로 自淨能力을 초과하여 자연의 본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자연이 인간에 대해 원함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과 자연과의 부조화로 인한 원한이 커다란 재앙과 질병을 가져 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음양합덕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아 자연과 인류는 진멸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대순사상에서는 현재를 우주공간에 가득차 있는 생명(氣) 자체가 분열운동을 종결짓고, 통일운동(無極)으로 대전환하는 시대라 하였다. 이는 우주 만물이 도의 근원인 무극의 통일시대와 같은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原始反本이라 한다. 원시반본은 우주가 생명의 탄생과 분화를 하기 이전의 상태와 같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원시반본은 다른 종교와 사상에서도 주장하고 있지만,⁴⁸⁾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원시반본은 성격이 다르다. 대순사상의 원시반본은 과거와 같은 상태로 되돌아 가자는 것이 아니라, 음양합덕이 완전히 이루어진 무극과 같은 상태로서 어떠한 갈등과 투쟁도 없는 이상사회인 선경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선천세계의 각종 문제를 해결한 이상사회인 선경은 후천

48) 원시반본은 모든 종교나 종교적 성향이 짙은 철학적 사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개념이다. 원시반본의 형태를 보면 기독교는 천국, 유학은 堯舜時代, 플라톤의 신화학은 이데아의 세계, 도가에서는 無爲自然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金炯孝, 東西哲學에 대한 主體的 記錄(서울 : 高麗苑, 1985), pp. 51-53.

세계를 의미한다. 후천세계는 상극이 아니라 상생이 지배하는 세계이다. 자연세계와 인간세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후천세계는 음양합덕이 완전하게 실현되어야 한다. 음양합덕이 상극에서 상생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원상생, 보은상생, 인존사상 등에 의해 가능하다고 한다.

1. 解冤相生

해원이란 자연과 신명세계와 인간세계에 생긴 원한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인간의 원한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와 천지도수가 잘못되어 음양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을 때에 생긴다고 한다. 강증산 상제는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⁴⁹⁾ 라고 하였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얻거나 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분통을 터트리고 마침내 병에 걸려 죽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원한은 욕망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생기고, 한번 생긴 원한은 풀어주지 않으면 점점 더 커지게 된다.

우주의 법칙은 천지도수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천지도수가 잘못되어 음양이 조화를 바르게 이루지 못하였을 때에도 원한이 생긴다고 한다. 천지도수란 우주가 운행하고 순환하는 법칙을 말한다. 천지도수에 의해서 우주와 인간이 창조되고 변화되기 때문에, 천지도수는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작용하며 인간과 자연의 진화에 따라 변화된다.⁵⁰⁾ 천지도수가 어긋나게 되면 우주의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이변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원한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선천시대에는 천지도수가 잘못되어 원한이 쌓이고 혼란 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극법칙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강증산 상제는 선천세계는 원한이 너무 많이 쌓여서 진멸의 위기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된다고 하였다.

음과 양이 상대에게 원한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화합을 이룰 수 없는

49) 典經, 교법 제3장 24절, p. 254.

50) 李恒寧, “大巡思想에 관한 小巧”, 大巡宗教文化研究所, 大巡思想의 現代的 理解 (서울 : 大巡眞理會出版部, 1988), p. 154.

것이다. 음양이 서로 원한관계에 있다면,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원한관계에 있으면 상대방을 증오하게 되고, 보복심리를 갖게 된다. 원한은 음과 양 중에서 한 쪽만 상대에게 원한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양쪽이 서로 원한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어떠한 관계의 원한이라 하더라도, 원한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음과 양의 덕을 합하는 음양합덕이 이루어질 수 없다.

우주와 인간세계에 쌓인 원한을 풀어주려는 해원은 음양합덕의 기초라 할 수 있다. 인간세계가 안정을 찾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상생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상극으로 인하여 쌓인 원한을 풀어 주는 해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주와 인간사회가 상극법칙에 의해 상호간에 원한이 맺혀 경쟁과 투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없기 때문이다.

相生이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상대방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에서 시작된다. 상생이란 공리주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이타주의적 윤리관이라 할 수 있다. 서로가 도와주는 협력적 관계가 되었을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생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관계를 맺고 있는 우주와 자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협력하며 질서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원리라 할 수 있다.

음양합덕에 있어서 해원은 기초적인 것이고, 상생은 음양합덕의 완성을 위한 방법이다. 음양합덕을 위해서는 선천세계의 모든 원한을 완전히 푸는데에서 시작된다. 우주와 인간세계의 원한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원한이 다시 나타날 수 있고 도와 주려는 마음이 적기 때문이다. 해원은 원한이 생기기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소극적인 것이다. 해원상태에서는 상대방을 미워하는 감정이 없어진 정도이지, 도와 주어야겠다는 의식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음양합덕이 완성되려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도와 주는 적극적 협력관계인 상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상생관계가 확립되면 우주와 인간사회가 무극상태와 같이 바르게 잡히고

모순과 갈등, 대립과 투쟁이 종식되고 조화를 이루어 선경이 된다고 한다. 선경이 되면 嫡庶와 반상의 구별과 차별이 없어지고, 모든 신명을 해원시키고, 빈부의 차별이 없어지고, 食祿이 고르게 되어 고통과 원함과 분노 등 모든 번뇌가 사라지며, 각 민족들간에 분쟁이 없어지고, 미물과 곤충들도 잘 살게 되며, 천덕과 지덕을 똑 같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즉 상생은 후천세계인 선경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된다.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 신명계와 인간세계가 상생관계가 이루어질 때 선경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2. 報恩相生

報恩相生이란 다른 사람이나 자연으로부터 받은 혜택이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보답하여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인간은 항상 자연환경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은혜와 혜택을 주고 받으며 생존하게 된다. 인간은 출생하고 성장하며 죽을 때까지 자연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과 혜택을 받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보은상생은 자연환경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혜택을 은혜로 생각하고 보답을 하며,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인간이 살아 가는데 받고 있는 자연환경에 대해 고마움을 갖고, 보은을 하기 위해서 파괴된 자연과 환경오염 등을 회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자연과 자원의 개발과 이용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인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 은혜를 갚는 기본적 행동은 孝이다. 효란 인간이 태어나고 양육을 해준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으로 보은의 기본이다. 효는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보은으로, 효를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보은을 할 수 없다. 보은은 효를 시작으로 형제간의 우애인 悌가 이루어지고, 타인들의 은혜에 대해 보답하며,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은혜를 갚는 忠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보은을 생활화하고 실천할 때 원한은 발생하지 않고 상생이 이루어져 음양합덕이 실현된다.

3. 人尊思想

음양합덕은 인존사상에 의해서 구현될 수 있다. 인존이란 자의대로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다. 강증산 상제는 인간은 출생하였다는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한다. 한 인간이 태어난 데에는 先靈神들이 육십년이라는 장시간 공덕을 기울인 결과이고, 이렇게 정성을 들여도 쓸만한 자손 하나를 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즉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의 출생 자체에 대해서 신이 공력을 들인 것으로 인식하여, 인간은 신과 같은 존재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헤아릴 수 없는 공력을 들이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선령신들은 육십년동안 공에 공을 쌓아 쓸만한 자손 하나를 타내되 그렇게 공을 드려도 자손 하나를 얻지 못하는 선령신들도 많으니라. 이 같이 공을 들여 어렵게 태어난 것을 생각할 때 꿈같은 한 세상을 어찌 잠시인들 헛되게 보내리오.⁵¹⁾

강증산 상제는 후천세계에서는 선천세계와는 다른 원리에 의해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라 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인간의 존중이다. 선천세계에서는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존중받지 못하고, 일부의 사람들은 각종 차별과 학대를 받았으나, 후천시대에는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존중받는 시대라 하였다. 후천세계에서는 뜻은 하늘에서 세우고 그 실현은 인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 만큼 인간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선천에는 모사가 재인(在人)하고 성사는 재천(在天)이라」하였으되, 이제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⁵²⁾

사실 우주도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떠한 의미와 가치도 있을 수 없다. 음양합덕도 인간세계의 안정과 평화와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

51) 典經, 교법 제2장 36절, p. 241.

52) 전경, 교법 제3장 25절, p. 257.

안인 것이다. 강증산 상제는 천지가 일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요, 일월도 사람이 없으면 빈 그림자니라(天地無日月空殼, 日月無知人虛影)하였다.⁵³⁾ 천지는 해와 달이 중요하고, 해와 달도 인간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고 하였다. 인간은 우주의 주체로써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무엇보다도 가장 존귀하다는 것이다. 인류사회의 모든 일은 모든 인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인간사회가 음양합덕이 완전히 실현되려면 인간을 존중하는 사상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음양합덕의 진정한 의미는 음과 양이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존중과 조화를 통해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실현하는데 있다. 인류의 행복과 평화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동등하게 존중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 인간이 동등하게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원한이 상존하게 되고, 대립과 갈등으로 사회는 불만과 불안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해원상생과 보은상생도 인존사상을 바탕으로 실천되어야 하겠다.

VI. 結論

이제까지 음양사상, 음양합덕의 의의와 사상적 가치, 실현방안 등에 관해 고찰하였다. 음양사상은 우주 만물은 각기 다른 대립적 성질을 갖고 있는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음양의 경쟁과 조화에 따라 만물이 창조되고 변화된다고 한다. 음양합덕은 이러한 음양사상을 재구성하여 역사 발전을 설명하고, 우주와 인간생활에 있어서 화합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상적인 미래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사상체계이다. 음양합덕은 음과 양이 각기 갖고 있는 덕을 바르게 화합하는 상생관계로 전환하여, 우주와 인간사회가 안정되고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사상으로 발전시켰다.

음양합덕은 현대사회에서 조화, 민주주의 이념, 가치창조, 자연주의적 윤리관 등의 가치를 갖고 있다. 이러한 사상적 가치는 현대사회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를 준비하는데에도 중요한 사상이

53) 典經, 예시 21절, p. 316.

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음양합덕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아 지나치게 경쟁만 하고 있어 대립과 반목, 투쟁의 장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우주와 인간사회는 상호간에 원한이 쌓여 상극상태에 있다고 한다. 음과 양이 심한 불균형 상태에 있어, 각기 가지고 있는 덕을 바르게 결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 抑陰尊陽의 불균형 상태를 바로 잡아 음양이 균형을 이루는 正陰正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음양의 상극상태와 불균형에 의해 파생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양합덕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만 한다.

음양이 균형을 이루는 정음정양을 위해서는 해원상생, 보은상생, 인존사상이 실제적으로 실천되어야 하겠다. 해원상생, 보은상생, 인존사상은 인류사회의 기본적 윤리이며, 사회발전을 위해서도 실현되어야 할 가치들이다. 이러한 덕목들이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사회는 각종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상사회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세계적인 미래학자들도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대한 충격을 극복하고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음양합덕과 같은 사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lvin Toffler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超産業主義的 질서를 하나의 기능적 전체로 통합하려면,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특정한 가치관이나, 또는 어느 정도 인식될 수 있는 상호 의존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⁵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 차원에서 미래에 관한 자신들의 의견과 예측, 요구를 말할 수 있는 豫想的 民主主義(anticipatory democracy)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의 엘리트주의적 목표설정과 계획 수립은 미래를 대비하는데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의사결정에 더욱 많은 사람들을 참여케 하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동안 국가의 주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의사 표현의 기회를 주는 대중적인 유기적 조직체를 만들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제도가 요구된다고 한다. Paul Kennedy도 21세기에 예상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윤리체계가 공정감(sense of fairness)과 균형감각(sense of proportion)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4) Alvin Toffler, *Future Shock*, 李揆行 譯, 前掲書, p. 317.

음양합덕은 서로 대립적인 성질들이 결합하여 조화를 이루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으로서, 미래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함축하고 있다. 이상적 민주주의나 공정감과 균형감을 갖춘 윤리체계는 음양합덕에 내포되어 있는 개념들이다. 따라서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음양합덕에 기초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접근해야 하겠다.

우리는 현대사회를 세계화 시대라 하고 있는데, 세계화 시대에서도 음양합덕은 사상적 기초가 될 수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어느 한 나라의 문제는 그 나라만의 문제일 수 없고, 전지구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세계 경제체제가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가 확대되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한경쟁을 하고 있어 국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체제는 상극법칙에 의한 것으로 국제적인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보다는, 더욱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문제를 파생시키게 된다. 그리하여 국가간의 문제는 모든 국가가 상극관계가 아닌 상생법칙에 의해 긴밀히 연결된 상호의존과 협력에 의해 접근해야만이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서도 우리는 음양합덕사상과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과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에도, 전통적인 음양합덕사상과 문화를 기초로 하여야 하겠다. 우리의 전통적 사상과 문화를 경시하고 서구의 사상과 문화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문제가 계속 파생될 것이다. 우리의 전통사상과 문화, 그리고 서구의 사상과 문화를 적절하게 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의 전통사상과 서구의 사상을 조화시키는 것도 음양합덕으로 볼 수 있다. 우리의 전통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서구의 사상을 우리의 상황에 적합하게 조화시키는 것은 음양합덕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음양합덕은 상호 대립적 관계에 있는 것들을 통합하여 바람직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음양합덕은 우리의 주체성과도 관련이 있다. 우리가 자기 존재의 확인과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우리의 미흡한 부분을 외래 사상으로 보완하려는 의식과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

가 주체적으로 전통사상인 음양합덕에 관심을 갖고, 현대사회의 문제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음양합덕은 조화론적 우주관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에 응용할 수 있는 사상체계이다. 음양합덕은 혼란된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하고, 보다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가 예상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는데 있어서도 음양합덕사상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음양합덕에 관한 序說的 연구이다. 앞으로 음양합덕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발전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사상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음양합덕을 비롯한 대순사상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한국문헌

- 金敬琢 譯解, 新譯 老子. 서울 : 玄岩社, 1985
- 金斗哲, “신과학 운동에 있어서의 基底概念의 타당성”. 新科學硏究會 編, 新科學運動. 서울 : 汎洋社出版部, 1986
- 金樹澈, 現代인을 위한 道德과 倫理. 서울 : 敎文社, 1987
- 金正泰, “大巡眞理의 宗旨에 관한 研究”, 大巡思想論叢, 第1輯 (大巡思想學術院, 1996)
- 金泰鎭, 오행상극설과 진화론. 서울 : 삼한출판, 1990
- 金忠烈, “宋代 太極論의 諸問題”, 韓國東洋哲學會 編, 東洋哲學의 本體論과 人性論. 서울: 延世大學校 出版部, 1986
- 金炯孝, 東西哲學에 대한 主體的 記錄. 서울 : 高麗苑, 1985
- 盧台俊 譯解, 道德經 : 老子. 서울 : 弘新文化社, 1994
- 盧台俊 譯解, 新譯 周易. 서울 : 弘新文化社, 1996
- 大巡眞理會 敎務部, 典經. 서울 : 大巡眞理會 出版部, 1989
- 朴昇植, “新行政과 社會的 衡平에 관한 考察”, 行政論叢 第5輯 (京畿大學 行政學會, 1983)
- 裴宗鎬, “東洋 本體論 序說”, 韓國東洋哲學會 編, 東洋哲學의 本體論과 人性論. 서울 : 延世大學校 出版部, 1986
- 徐相潤 譯解, 周易. 서울 : 韓國協同出版社, 1983
- 李敦熙, “民主主義文化와 主體性”, 韓國精神文化硏究院, 國家·生存 그리고 發展. 서울: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3
- 李恒寧, “大巡思想에 관한 小巧”, 大巡宗教文化硏究所, 大巡思想의 現代的 理解. 서울 : 大巡 眞理會出版部, 1988
- 柳正東, “程·朱의 太極論”, 韓國東洋哲學會 編, 東洋哲學의 本體論과 人性論. 서울: 延世大學校 出版部, 1986
- 鄭大珍, “大巡思想 硏究를 위한 提言”, 大巡思想論叢, 第1輯 (大巡思想學術院, 1996)

張秉吉, 大巡宗教思想. 서울 : 大巡宗教思想研究所, 1989

陳鼓應, “道家的 調和觀”, 東亞日報社, 동양사상과 사회발전. 서울 : 東亞日報社, 1996

車相轅 譯解, 大學 中庸. 서울: 新韓出版社, 1982

2. 서양문헌

Becker, Howard, and Harry Elmer Barnes, *Social Thought from Lore to Science*. New York : Dover Publications, 1961

Engels, Frederick, *Anti-Duhring*, trans., Emile Burns. New York : International Publishers, 1939

Frederickson, H. George, *New Public Administration*. Alabama :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80

Friedlein, Curt, *Geschichte der Philosophie*. Berlin .: Erich Schmidt Verlag, 1980. 강영계 譯, 서양철학사. 서울: 서광사, 1989

Frohock, Fred M., *Public Policy : Scope and Logic*.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79

Goulet, Denis, “Development for What?”,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July, 1968

Held, David, “Democracy : From City-States to a Cosmopolitan Order?”, *Political Studies*. Vol. XL, Special Issue, (1992)

Kennedy, P., *Prepar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 Random House, 1993

Kojima, Gunzo, ed.,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for Democratizations for Democratic Education in Japan*. Tokyo : The Institut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Service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1960

Meisel, James H.(ed.), *Pareto & Mosca*.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56

Parsons, Talcott, and Neil Smelser, *Economy and Society*. New York : The Free Press, 1956

Rawls, John,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Storig, Hans Joachim, Kleine Weltgeschichte der Philosophie:in zwei Banden.
河在昌 譯, 세계철학사 : 상권. 서울 : 培材書館 1992

Toffler, Alvin, Future Shock. 李揆行 譯, 미래쇼크. 서울 : 韓國經濟新聞社,
1996